



### ◆ -카르텔·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실천 선언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그룹 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회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임원 및 부서장 그리고 영업소장이 한자리에 모여 카르텔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실천을 서약하였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과거 영업현장에서 경쟁업체 임직원들과 사소하게 나눈 대화 및 정보 내용 등에 대한 것들이 법 위반의 근거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고 회사가 위기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는 공정거래 준수가 회사의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선행 조건이며 공정거래관련법 준수를 통한 영업력 확대가 진정한 경쟁력 강화임을 인식하고 Compliance Program을 도입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교육과 사전 업무 모니터링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자율준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 하여 왔지만, 아직도 우리 업무 주변엔 법 위반 가능성이 존재 하고 있다는 것이 전년도 운영 평가 결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치열한 판매 경쟁 하에 있으며 우리는 5천억 목표 달성의 비전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단기간의 목표 달성만을 지나치게 의식해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등 편법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카르텔과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를 위한 실천 서약식을 통해 원칙과 정도를 중시하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의지를 다지고자 합니다.

첫째, 담합 금지를 위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경쟁사와의 접촉을 피하고, 경쟁사와의 정보교환 등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거래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셋째, 경영자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은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부하직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지를 충분히 관리, 감독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실을 입게 된다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며 퇴사 등 강력히 제재할 것임을 천명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기업 문화를 통하여 주식회사 정·식품의 위상을 선양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23일

주식회사 정·식품 대표이사 사장 손 현수